https://doi.org/10.30775/KMES.55.3.133
음악교육연구 제55권 제3호 pp. 133-166 (2026년 8월) ISSN 1229-4179 (Pri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55, No.3, (August, 2026) ISSN 2713-3788 (Online)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국악 창작 수업에서의 음악 경험에 관한 혼합연구: 즉흥 창작의 교육적 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A Mixed Methods Study on Music Experiences in Middle School Gugak Creation Classes Applying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Focusing on Exploring the Educational Potential of Improvisation

김승연*
Seungyeon Kim

초록 본 연구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국악 창작 수업에서 즉흥 창작과 정간보 기보 창작 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을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국악 즉흥 창작이 지니는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를 탐색하고, 국악 창작 교육의 실천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수렴적 혼합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 결과,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수업 자체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즉흥 창작이 기존의 정간보 창작 방식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두 가지 창작 방식이 학습자에게 각기 다른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주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악 교육에서 문화감응교수법의 가치와 즉흥 창작의 교육적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실천적 방안으로 '선 즉흥, 후 정간보 창작'의 단계적 교수 학습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보 중심 관행에 머물러 있던 국악 창작 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국악 즉흥 창작 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문화감응교수법, 국악창작교수법, 즉흥 창작, 정간보 기보, 혼합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possibilities and value of Gugak (traditional Korean music) improvisation and to derive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practical Gugak creation education. To this end, a convergent mixed-method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tudents' culturally responsive musical experiences through improvisation and Jeongganbo notation methods in middle school Gugak creation classes applying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CRP). Quantitative results indicated high scores across all survey items with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creation method. These findings suggest the positive potential of CRT-based Gugak classes and indicate that improvisation can offer educational value comparable to conventional Jeongganbo composition. Meanwhile,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se two methods provide distinct yet mutually complementary musical experiences for stu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e value of CRT and the potential of improvisation in Gugak education. Practically, it proposes a phased instructional application: "improvisation first, Jeongganbo composition second." This research is highly significant for broadening the horizons of traditionally notation-centric Gugak education and demonstrating practical feasibility of teaching Gugak improvisation.

Key words: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Gugak creation pedagogy, improvisation, Jeongganbo notation, mixed methods research

* First author, E-mail: sinsia32@snu.ac.k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Received: 31 May 2026, Reviewed (Revised): 30 June 2026 (12 August 2026), Accepted: 21 August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Ⅰ. 서론

최근 교육과정의 흐름은 학생들이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지식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9).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가동하여 삶에서 마주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OECD, 2019), 학생의 삶과 학교 교육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될 때 강화될 수 있다(Kim, 2025).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삶에서 향유하는 문화적 배경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여 학업 성취와 주체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두는 문화감응교수법(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Gay, 2018; Ladson-Billings, 1995)은 학생의 삶과 학교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한 교수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음악교육 맥락에서 문화감응교수법은 학습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과 일상적 음악 경험을 교수 학습 과정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는 교수법으로 정의된다(Chung & Kwag, 2019, McKoy & Lind, 2022). 특히, 문화감응교수법에서 강조하는 문화에 대한 감응성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의미한다(Chung & Kwag, 2019, p. 95). 따라서 문화감응교수법은 우리나라처럼 국악이 학생들의 문화적 전통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친숙하지 못한 이질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적 자본과 전통 문화유산인 국악을 유연하게 매개하는 실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감응교수법은 서구의 기보 중심의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구전 전승이나 즉흥 연주 등 다양한 음악 전승 방식을 균형 있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Palmer et al., 2021). 그러나 오늘날 국악은 근대 이후 서구식 기보 중심의 음악관으로 인해 즉흥성과 가변성을 본질로 하는 그 원형이 퇴색되어 왔으며, 오선보나 정간보라는 틀에 국악을 고정하여 표현하는 전승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Lee, 1980, 2000; Song, 2015),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국악 창작 교육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대부분의 2022 개정 음악 교과서 역시 정간보를 활용한 기보 창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악 즉흥 창작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국악의 고유한 기보법인 정간보는 학습자가 국악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국악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Kwon, 2014, 2017). 하지만 정간보 기보에 치우친 국악 창작 교육은 음악적 아이디어를 악보의 틀에 고착화함으로써, 국악의 원형인 즉흥적 생성성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음악 전승 방식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문화감응교수법은 학생의 일상적 문화와 전통 문화유산인 국악을 매개할 수 있다는 점과 그간 소외되어왔던 전통음악의 전승 및 창작 방식과 기보

방식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악 창작 교육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악 창작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감응교수법을 교육적 토대로 삼아 정간보 기보 창작과 즉흥 창작의 두 가지 국악 창작 방식이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특히 기보 중심 관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국악 즉흥 창작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 음악교육 맥락에서의 문화감응교수법 관련 연구는 이론적 고찰이나(Chung & Kwag, 2019), 예비 및 현직 음악 교사들의 역량 연구(Chung & Kwag, 2020; Jung et al., 2025)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에 문화감응교수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여 그 교육적 가치와 학습자의 경험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국악 창작 교육 연구의 경우, 국악 창작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M. Kim, 2024; S. Kim, 2024), 국악 창작 수업을 위한 기초 연구(Kim, 2023; Kwon, 2014; Kwon, 2025), 국악 창작 수업 방안 연구(Bae, 2017; Jang, 2025; Kim, 2015; K. Kim, 2024) 등 국악 창작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국악 창작 교육의 효과를 실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악 즉흥 창작 관련 연구는 국악 즉흥 창작 수업 지도 방안(Lee, 2013; Park, 2017)이나 모형(Kwon, 2017)을 제시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악 즉흥 창작의 적용과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국악 창작 수업에서 즉흥 창작과 정간보 기보 창작 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악 즉흥 창작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국악 창작 교육의 실천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음악 경험 인식은 어떠한가?

1-1. 국악 창작 방식(즉흥 창작 vs 정간보 기보 창작)과 수업 배치 집단(순서)에 따른 중학생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의 차이 및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1-2. 국악 창작 방식에 따라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의 하위 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1-3.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문항별 인식은 어떠한가?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질적 양상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감응교수법

문화감응교육(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은 학습자가 가진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교육에 반영하여,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의 제공을 통해 학업 성취를 제고하는 교육적 실천이다(Chung & Kwag, 2019; Jung et al., 2025). 문화감응교육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y)(Ladson-Billings, 1995)', '문화감응교수법(Gay, 2018)' 등의 용어를 통해 이론적 토대가 형성되어 왔다. 래드슨-빌링스(G. Ladson-Billings)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더불어 사회적 비판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Ladson-Billings, 1995). 이를 위해 세 가지 기준으로 학생들이 학업적 성공을 경험해야 할 것,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사회의 현상 유지에 도전할 수 있는 비판적 의식을 길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게이(G. Gay)는 문화감응교육의 맥락에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지만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원리는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하며,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문화감응교수법'을 사용하였다(Gay, 2018). 그는 문화감응교수법을 다양성, 종합적 및 포괄적, 다차원적, 권한 부여, 변혁적, 해방적, 인간적, 규범적 및 윤리적 특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문화감응교수법은 학업적 성취와 함께 사회적 의식과 비평, 문화적 지지, 역량, 대화, 공동체 건설과 개인적 연결망, 개인의 자기 가치화와 능력, 배려의 윤리를 동시에 함양하도록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브라운-제피(S. Brown-Jeffy)와 쿠퍼(J. Cooper)는 문화감응교육 담론에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원칙을 적용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Brown-Jeffy & Cooper, 2011). 프레임워크는 정체성과 성취, 형평성과 수월성, 발달적 적합성, 전인적 교육, 학생-교사 관계의 다섯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첫째, 정체성과 성취(identity and achievement)는 다중적인 관점을 포용하여 문화유산,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화 등 학생의 다양한 문화 배경을 중요한 자산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학습의 기반으로 삼아 정체성을 발달과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형평성과 수월성(equity and excellence)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기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의 문화적 자본을 인정하고 다문화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실천을 포함한다. 셋째, 발달적 적절성(developmental appropriateness)은 학생의 학습 방식, 학습 선호도, 심리적 요구의 문화적 차이 등을 포함한 인지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가 이러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다. 넷째, 전인적 교육(teaching whole child)은 학생이 지닌 지식의 원천과 문화적 자본을 수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발판 삼아 주체적으로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업 능력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요구까지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접근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사 관계(student-teacher relationships)는 돌봄,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 환경,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의 인정을 통해 교실 밖까지 확장되는 유동적이고 평등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기반은 문화감응교육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문화감응교수법은 음악 교육 맥락에서도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끌어낼 수 있는 접근법으로 주목되어 오고 있다(Bond, 2017; Chung & Kwag, 2020; Jung et al., 2025; McKoy & Lind, 2022; Palmer et al., 2021). 특히, 파머(E. Palmer) 등은 '문화감응적 음악 교수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ulturally relevant and responsive music teaching)'를 제안함으로써 음악 교육 맥락에서 문화감응교육의 실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다(Palmer et al., 2021). 이 프레임워크는 교사의 역량, 정보에 기반한 선택, 진정성, 총체적이고 비교적인 수업 설계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제안한다. 첫째, 교사의 역량(teacher competencies) 요소는 문화적 역량과 겸손, 서구 예술 음악 중심 관행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다양한 음악 양식의 비판적 가치 평가, 지역사회와의 연결, 개방적인 태도와 개인적 음악적 편견에 대한 점검을 음악 교사의 역량으로 강조하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한다. 둘째, 정보에 기반한 선택(informed choice)은 레퍼토리 선정, 삶의 경험과의 연결, 맥락에 기반한 선택, 사회정치적 관련성,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유의미한 앙상블 구성을 포함한다. 이는 학생들의 교실과 학교 공동체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문화적으로 맥락적으로 적절한 수업을 제공하려는 교사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셋째, 진정성(authenticity)은 모든 음악의 정전 안에서 음악적 스타일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뉘앙스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지식, 진심 어린 가치인정과 존중, 맥락을 고려한 연주를 포함한다. 특히, 서구의 악보 체계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의 미묘한 차이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과 구전 전승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이고 비교적인 수업(holistic/comparative lessons)은 균형 잡힌 수업과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맥락 중심적, 다면적, 학생중심적, 비부가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악보 기반학습과 구전학습이 균형을 이루는 것, 표준적 음악 용어를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적 비계를 설정하는 것,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육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다문화적이고 다음악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서구의 표준 악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악보가 없는 음악을 배제하여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전

전승 방식의 학습과 표준 악보 학습 모두 전반적인 음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감응교수법은 학습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과 일상적 음악 경험을 교수 학습 과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Chung & Kwag, 2019, McKoy & Lind, 2022). 특히, 문화감응교수에서 강조하는 문화에 대한 감응성이 단순한 문화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은(Chung & Kwag, 2019, p.95),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고유한 음악 문화인 국악인 학생들의 일상적인 문화적 배경이 아닌 이질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문화감응교수법 도입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서구의 인종적・민족적 다원주의 맥락에서 고안된 문화감응교수법을 국악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향유하는 현대적 일상 문화 자본과 민족적 역사적 뿌리인 전통 음악 문화유산을 유연하게 매개하는 실천적 통로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국악 창작 교육의 이론적 토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국악은 실연을 중심으로 전승되며, 연주자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과 연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같이 즉흥적으로 변화되고 생성되는 국악의 본질이 서구의 기보 중심 음악관의 영향으로 인해 퇴색되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Lee, 1980, 2000; Song, 2015). 이병원(Lee, 1980, 2000)은 전통음악이 작곡과 연주가 분리되지 않은 채 연주 행위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재구성되는 음악임을 강조하면서 근대 이후 서구식 기보 중심 음악관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음악을 고정된 '작품'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송혜진(Song, 2015) 역시 전통음악의 본질이 구전심수와 실연을 기반으로 연주자마다 다르게 구현되는 가변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보화와 기록화를 통해 전통음악의 원형을 고정된 형태로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이병원(Lee, 2000)은 국악 고유의 기보법인 정간보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서구식 기보법의 목적과는 차별화된다고 선을 그으며 국악의 본질을 기보에 가둘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악의 기보법인 정간보는 창작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음악 학습자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작곡가가 오선보에 악상을 적고 연주자들이 작곡의 악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서구의 기보 목적과는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연주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창작을 '과정으로서 국악 고유의 본질적인 음악 행위'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국악 창작 교육에 전통음악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현대적 교육 맥락에서 국악 창작 교육을 재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구체적으로, 전통음악의 창작 원리가 악보로 기보된 음악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행위 속에서의 변주와 생성에 기반한다는 점과 전통 자체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악 창작 교육은 기보 중심의 창작 방식뿐 아니라 학습자가 음악 행위의 과정 속에서 국악의 즉흥성과 가변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흥 창작은 기보의 과정 없이도 마음 속에 계획한 음악적 아이디어나 음악적 구조를 순간적으로 다양한 악기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작곡의 과정과 동일한 차원의 창작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Kwon, 2017). 특히, 국악의 즉흥 창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악의 전통적인 음악 체계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연주자가 미시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생성해내는 과정이다(Lee, 1980). 따라서 국악 즉흥 창작은 국악 고유의 전통적인 어법과 구조를 바탕으로 악보 없이 음악적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악 즉흥 창작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악기나 목소리로 직접 표현함으로써 국악의 즉흥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Kwon, 2017). 이같은 교육적 가치를 토대로 하여 국악 즉흥 창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수업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왔다. 이상희(Lee, 2013)는 국악의 장단을 활용한 즉흥 연주 수업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고, 박주만(Park, 2017) 즉흥 연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창작 국악동요를 활용한 이야기 음악 만들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민지(Jang, 2025) 경기민요를 활용한 국악 창작 수업 방안으로 즉흥적으로 장단 바꾸며 노래 부르기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덕원(Kwon, 2014) 국악 창작 교육 개선 방안으로서 국악기를 이용하여 즉흥 표현하기를 제안하였으며, 후속 연구(Kwon, 2017)에서 사용할 악기 정하기-음악의 내용 구상하기-실험적으로 즉흥 표현해보기-즉흥 창작 발표하기-상호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된 국악 즉흥 창작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악 즉흥 창작을 지도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음악 수업 현장에서는 국악 즉흥 창작 활동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22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 5종-천재(Choi et al., 2025), 미래엔(Cho et al., 2025), YBM(Park et al., 2025), ㈜ 박영사(Y. Kim et al., 2025), 아침나라(D. Kim et al., 2025)-을 분석한 결과, 국악 창작 활동은 정간보나 오선보를 활용한 기보 중심의 국악 창작 활동에 편중되어 있었다. 예컨대, 정간보를 활용한 국악 창작은 장단 만들기(천재, 미래엔, YBM, ㈜박영사), 말붙임새 만들기(미래엔, YBM), 가락 만들기(천재)가 제시되어 있으며, 오선보와 정간보를 함께 활용한 국악 창작은 가락 만들기(미래엔, 아침나라, ㈜박영사) 등 오선보와 정간보를 활용한 국악 창작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국악 고유의 즉흥성을 다루는 창작 활동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정간보는 국악의 장단, 가락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국악 고유의 전통 악보로, 학습자가 국악의 구조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창작을 돕는 인지적인 비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Kwon, 2014, 2017). 그러나 국악 창작 교육이 기보 창작에 치우치게 된다면, 국악 창작의 즉흥적・과정적 본질의 측면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악 창작 교육은 정간보 창작의 유용성과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국악의 즉흥적 본질을 함께 조명하는 균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악 창작의 본질적 원형을 회복하고 창작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간보를 활용한 국악 창작뿐 아니라, 국악 즉흥 창작을 학교 음악 수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감응교수법은 학생의 일상적 문화와 전통음악 문화유산인 국악을 매개할 뿐 아니라 구전 전승이나 즉흥 연주 등 다양한 음악 전승 방식을 균형있게 다루는 것을 강조한다(Palmer et al., 2021). 따라서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을 통해 정간보 창작과 즉흥 창작을 병행하는 것은, 국악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국악 창작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중학교 국악 창작 수업에서 즉흥 창작과 정간보 기보 창작 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경험의 질적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수렴적 혼합연구(convergent mixed-method design)로 설계되었다(Creswell & Plano Clark, 2011). 이는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음악 경험에 대한 인식을 양적으로 조사하고, 양적 자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험의 질적 양상을 탐색하여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절차는 준비, 사전 처치, 기초 학습, 1차 실험 처치, 2차 실험 처치, 사후 분석의 여섯 단계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procedure

Phase	Stage	
Preparation	**Instructional design**	Designing culturally responsive Gugak creation lessons
	research design	Establishing the convergent mixed-methods Applying a crossover design
	Instrument development	Developing initial drafting ① Instrument for measuring affective domain in Gugak ② Instrument for measuring perception of culturally responsive Gugak music making experiences
		Validity & reliability : conducting a pilot study and expert evaluation
		Refining and finalizing research instruments

			Data collection	
			Quantitative	**Qualitative**
Pre-intervention	**Homogeneity Test**		Pre-survey	-
	Pre-test of janggu performance ability and affective domain in Gugak			
Foundational learning	Understanding jangdan structures, janggu skills, principles of Jeongganbo notation		-	-
1st Instructional intervention	**1st Session**		Survey	Learning artifacts
	Group A Improvisation	Group B Jeongganbo notation		
	Interval: 1 week			
2nd Instructional intervention	**2nd Session**		Survey	Open-ended responses, learning artifacts
	Group A Jeongganbo notation	Group B Improvisation		
Post-analysis	**Integration**		Statistical analysis	Content analysis

준비 단계에서는 수업 설계, 연구 방법 설계, 설문 도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국악의 즉흥 창작과 정간보 기보 창작 방식에 대한 음악 경험 인식의 측정을 위해, 교차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창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사전 처치 단계에서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창작의 기초가 되는 장구 연주, 정간보 기보법 등에 대한 학습 단계를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본격적인 실험 처치 단계에서는 각 집단별로 창작 방식의 순서를 다르게 적용하여 1차 및 2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가 두 가지 창작 방식을 모두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각 실험 처치에서의 학습 내용을 내면화할 시간을 확보하고 효과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1주의 간격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 및 2차 수업이 끝난 후에는 준비 단계에서 개발된 문화감응적 국악 창작 경험 인식 측정 도구로 동일하게 설문을 실시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자료는 2차 수업 후에는 설문 조사와 더불어 개방형 응답을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하였다. 각 수업 참여에 따른 학습 결과물 역시 질적 자료에 포함하였다. 사후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은 인천시에 위치한 G 중학교 1학년 4개 학급의 학생 70명이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의한 정규 음악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과정 전반의 윤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및 자료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득하였다. 1학년 4개 학급 학생 수는 총 73명이나, 수업에 결석한 학생 2명과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1명을 제외한 70명의 학생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교차 실험 설계를 통해 국악 창작 방식 적용 순서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처치에 앞서 연구 대상자 70명을 2학급씩 두 그룹(A그룹 37명, B그룹 33명)으로 구분하였다. 기능적・정의적 측면에서 두 그룹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구 실기 점수와 국악에 대한 정의적 영역 점수를 변수로 하여 <Table 2>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장구 실기 능력은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기초적인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연주 자세, 주법, 장단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에 의해 5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정의적 영역은 국악에 대한 선호도(나는 평소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 흥미(나는 음악 시간에 국악을 배우는 활동에 관심이 있다), 가치 인식(나는 국악이 나의 삶과 연결된 가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적 효능감(나는 나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학습 참여 의지(나는 이번 국악 창작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마음이 있다)와 관련된 5문항의 설문 도구를 개발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정의적 영역 측정 설문 도구는 음악 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석사학위 소지 음악 교사 1인의 검토를 통해

안면 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α = .816)를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장구 실기 능력(t = -0.014, p = .918)과 국악에 대한 정의적 영역(t = -0.274, p = .78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국악 창작 학습을 위한 기능적・정의적 측면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Results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for pre-test homogeneity

Variable	Group	*N*	*M*	*SD*	*t*	*p*
Janggu performance ability	A	37	4.65	0.75	-0.014	0.918
	B	33	4.67	0.69		
Affective domain in Gugak	A	37	3.45	0.77	-0.274	0.785
	B	33	3.50	0.70		

3. 실험 처치를 위한 수업 설계

본 연구의 실험 처치를 위한 수업은 권덕원(Kwon, 2017)이 제시한 국악 즉흥 창작 수업 모형 및 장단꼴 창작 수업 모형을 토대로 삼고, 브라운-제피와 쿠퍼(Brown-Jeffy & Cooper, 2011)의 문화감응교수법 5대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본 수업은 새로운 수업 모형 개발이 아닌 실험 처치를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으므로, 수업 설계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수업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국악을 전공한 동료 음악 교사 1인과 음악교육학 박사 1인을 통해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 처치를 위한 수업은 '나만의 별달거리 장단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총 6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업 절차는 <Table 3>과 같다. 장단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장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등 국악 창작의 기초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Kwon, 2017). 이에 따라 1-4차시에는 별달거리 장단 연주하기, 별달거리 장단의 사설 창작하기, 별달거리 장단의 다양한 변형장단 연습하기를 통해 국악 창작의 기초를 다지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다양한 변형장단을 연습하면서 별달거리 장단의 틀 안에서 반복과 변형을 통해 장단의 가변성과 생성성을 체득하고, 장단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5-6차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을 두 가지 창작 방식(즉흥 창작, 정간보 기보 창작)으로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동일한 창작 과제를 창작 방식만 다르게 하여 2회 수행하였으며, 교차실험설계에 따라 A그룹은 선 즉흥 후 정간보의 순서로, B그룹은 선 정간보 후 즉흥의 순서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위의 즉흥성과 연주 원리를 즉흥 창작 활동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같은 장단을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사이 사이에 즉흥 연주 한 두 장단을 끼워 넣는 식으로 즉흥 창작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별달거리 장단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과 변형의 창작 원리를 반영하여 장구 즉흥 연주 연습하기-음악적 아이디어를 장단의 구조에 맞게 구상하기-실험적으로 즉흥 표현해보기-즉흥적으로 우리 반 별달거리 장단 공동 완성하기-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의 5단계로 진행되었다. 정간보를 활용한 장단 창작은 정간보 기보 원리 이해하기- 반복과 변형의 원리에 따라 장단 변형시키기- 정간보를 활용하여 내가 만든 변형 장단 악보로 기보하기-창작한 장단을 장구로 연습하기- '우리 반 별달거리 장단' 공동 완성하기-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의 6단계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악의 어법에 맞게 장단을 창작할 수 있도록, 4박으로 구성된 별달거리 장단의 첫 박에 강세를 주어 기본 장단의 구조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장단의 기본 구조 안에서 박을 쪼개거나 엇박을 넣는 등 장단의 역동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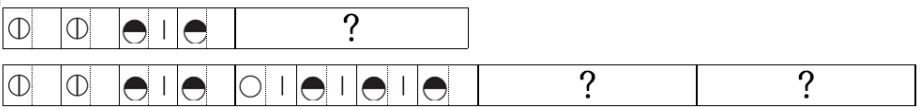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의 국악 창작 수업은 문화감응교수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브라운-제피와 쿠퍼(Brown-Jeffy & Cooper, 2011)의 문화관련교수법의 5가지 핵심 원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5가지 수업 설계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5가지 기준은 1) 정체성과 성취, 2) 형평성과 수월성, 3) 발달적 적절성, 4) 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 5) 학생-교사 관계이다. 이 중 '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는 브라운-제피와 쿠퍼(Brown-Jeffy & Cooper, 2011)가 제시한 5가지 핵심 원리 중 전인적 교육의 원리를 국악 창작 교육 맥락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이끌어 가는 주체성과 권한을 갖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 설계를 위한 5가지 기준과 구체적인 수업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과 성취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이 국악 창작 과정에 반영되어 주체적인 성취로 이어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나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과 리듬 패턴 등이 장단에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국악을 낯선 음악이 아닌 자신의 삶과 연계된 음악으로 인식하고, 창작 과정에서 개인의 문화적 음악적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음악적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3> Instructional design for experimental treatment

Phase	Session	Making our own Byeoldalgeori jangdan	
		Students will be able to engage in jangdan creation using the Byeoldalgeori jangdan	
Foundation learning	1-2	Developing janggu performance skills and understanding Byeoldalgeori jangdan	
	3	Making and performing original sa-seol (lyrics) for Byeoldalgeori jangdan	
	4	Practicing varied jangdan for understanding principles of repetition and variation	
Intervention	5-6	**Improvisation**	**Jeongganbo notation**
		1. Practicing improvisation on the janggu 2. Developing musical ideas on the janggu into the jandan structure. 3. Experimenting with improvisational expressions on the janggu 4. Collaborativly completing of the class Byeoldalgeori jangdan through improvistion 5. Peer review and self evaluation	1.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Jeongganbo notation 2. Varying the jangdan 3. Notating the self-created varied jangdan using Jeongganbo 4. Practicing the created jangdan on the janggu 5. Collaborativly completing of the class ‘Byeoldalgeor jangdan’ 6. Peer review and self-evaluation



CRP principles	Standards
Identity & achievement	• Establishing an open learning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freely express their musical ideas and daily cultural backgrounds (e.g., favorite music and rhythmic patterns) within the jangdan.
Equity & excellence	• Ensuring educational accessibility by providing foundational learning for jangdan making, thereby preventing students from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ir prior musical experience or varying skill levels. • Supporting student achievement by providing comprehensive feedback throughout the creative process.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 Motivating students by integrating K-pop, which aligns with the interest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to jangdan • Designing pedagogical scaffolding that lowers psychological barriers by prompting students to 'make a jangdan continuation from the preceding jangdan,' tailored to the middle school learning level.
Musical agency & empowerment	• Empowering students to exercise musical agency within the learning community by structuring individual creative tasks to culminate in a collective class project.
Student-teacher relationship	• Cultivating a classroom culture of mutual respect where every student’s musical ideas are valued, and providing consistent individual feedback and emotional support to foster trust, enabling students to engage in the music making process with confidence and enjoyment.

둘째, 형평성과 수월성의 측면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음악 경험이나 음악적 능력에 의해 장단 창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단 창작을 위한 기초 학습을 제공하여 교육적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창작 과정에서 적시에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국악 창작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월성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셋째, 발달적 적절성 측면에서 ‘중학생인 학생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중학생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에서 즐겨 듣는 K-pop을 장단과 연결하여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앞 장단에 이어지는 장단 창작하기’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창작 과제에 대한 심리적 장벽과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비계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 측면에서, ‘학생이 음악가로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창작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물이 학급의 공동 창작 결과물로 결실을 맺도록 연결하였다. 이는 학습 공동체 내에서 각자가 음악가로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측면에서, ‘교사는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창작 과제를 부여하여 모든 학생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즉흥 창작 시에는 학생들이 장구를 치며 장단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교실을 순회하며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정간보 창작 시에는 정간보에 기보된 장단 창작 결과물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악의 어법, 장단의 특징, 정간보 기보법에 맞게 장단을 창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창작 과정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에서의 음악 경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문화감응적 국악 창작 경험 인식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은 수업 설계 단계에서 설정한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5가지 수업 설계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Table 4>와 같이 국악 창작 교육 맥락에 맞춰 각 영역별로 3문항씩 총 15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계적 수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습자의 심층적 경험을 질적

으로 보완하기 위해 3문항의 개방형 질문지를 병행하였다. 개방형 문항은 음악적 정체성의 표현, 음악적 주체성 형성, 창작 방식의 선호도 및 발달적 적합성의 세 가지 측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측정 도구는 음악 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음악 교육 석사학위를 소지한 경력 15년 이상의 음악 교사 1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객관식 15문항과 개방형 3문항 중 3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내용 타당도 지수(CVI) 1.00의 결과를 얻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타당도 지수가 낮은 3개의 문항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후 설문 문항의 현장 적합성과 가독성을 점검하기 위해 같은 학교 3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스터디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문 도구의 객관식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9로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Table 4> Instrument for measuring perception of culturally responsive Gugak creation experience

Factors	Sub-elements	Items		Cronbach's α
		Closed ended	Open ended	
Identity & achievement	Expression of individual identity	1	1	.794
	Validation of students' musical backgrounds	2		
	Artistic expression via Gugak	3		
Equity & excellence	Equal access	4	-	.874
	Excellence in expression	5		
	Equity in opportunities for success	6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7	1	.859
	Recognizing the task as a challenge	8		
	Engagement and flow	9		
Musical agency & empowerment	Musical self-efficacy	10	1	.934
	Musical agency	11		
	Agentic competence	12		
Student-teacher relationship	Caring response	13	-	.920
	Support for students' autonomy	14		
	Democratic interaction	15		
Total		15	3	.959

5. 자료수집 및 분석

1) 양적 자료수집 및 분석

양적 자료는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한 장구 실기 점수와 국악에 대한 정의적 영역 측정 설문, 1차 및 2차 실험 처치 이후 문화감응적 국악 창작 경험 인식 측정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 R(version 4.6.0)과 RStudi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음악 경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교차실험설계에 따라 연구 대상 집단(A, B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위해 사전 장구 실기 점수와 국악에 대한 정의적 영역 점수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국악 창작 방식과 수업 배치 집단에 따라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원 혼합 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창작 방식(집단 내 요인)과 수업 배치 집단(집단 간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순서 효과를 통제하여 창작 방식에 따른 음악 경험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악 창작 방식에 따라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의 5개의 하위 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5개의 요인에 대해 검정을 반복해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1종 오류를 통제하고자, 본페로니 교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의 분포와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하위요인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질적 자료 분석과의 통합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 자료는 수업 결과물과 2회차 실험 처치 후 실시한 설문 도구에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개방형 문항은 창작 방식에 따른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질적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역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준비, 조직화, 보고의 절차로 분석되었다(Elo & Kyngäs, 2008).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브라운-제피와 쿠퍼(Brown-Jeffy & Cooper, 2011)의 5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설계의 5가지 기준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둘째, 조직화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읽고 분석 단위에 따라 코딩 및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셋째, 보고 단계에서는 질적 분석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즉흥 창작 활동 시 촬영한 수업 영상과 학생들의 정간보 창작 결과물을 수집 및 분석하여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의 성취도와 결과물의 양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양적 연구 결과

1) 국악 창작 방식과 수업 배치 집단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 차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의 국악 창작 방식과 수업 배치 집단(순서)에 따른 중학생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교차실험설계에 따라 창작 방식의 순서를 다르게 적용한 수업 배치 집단에 따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 = 0.045, p > .05). 또한 창작 방식 자체(F = 0.125, p > .05)에 따른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Two-way mixed ANOVA results for culturally responsive music experience perception by group and Gugak creation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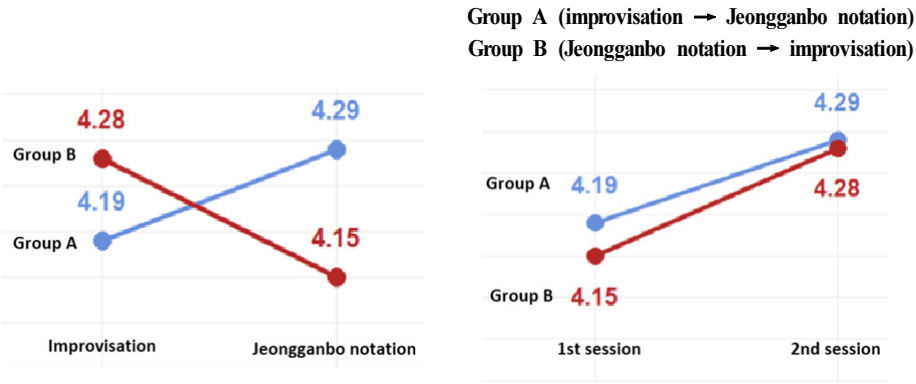
Source	*df*	*dferror*	*F*	*p*	η^2_G
Group (A:B)	1	68	0.045	.832	.001
Method (improvisation : Jeongganbo notation)	1	68	0.125	.725	.000
Group : Method	1	68	4.005	.049*	.009

Note: *p < .05, η^2_G = Generalized eta-squared, Type III sum of squares was used for the analysis.

반면, 수업 배치 집단과 창작 방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005, p < .05). 창작 방식에 따른 각 집단의 음악 경험 인식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 [Figure 1]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선행 처치보다 후행 처치에서 더 높은 인식 점수를 기록하는 교차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즉흥 창작 후 정간보 창작을 수행한 A집단의 경우, 즉흥 창작(M = 4.19)보다 정간보 창작(M = 4.29)에서 더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정간보 창작 후 즉흥 창작을 수행한 B집단의

경우, 정간보 창작(M = 4.15)보다 즉흥 창작(M = 4.28)에서 미세하게 높은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서로 다른 창작 방식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각 창작 방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서 국악 창작의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즉흥 창작과 정간보 창작이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에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두 방식 모두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기술통계 측면에서 선행 처치로 즉흥 창작을 경험한 A집단의 1회차 실험 처치의 평균(M = 4.19)이 정간보 창작을 경험한 B집단의 1회차 실험 처치의 평균(M = 4.15)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또한 즉흥 창작을 후행 처치로 경험한 B집단에서 나타난 인식 점수의 상승폭이(+0.13) A집단의 점수 상승폭보다(+0.10) 미세하게 높은 경향성이 보였다. 이러한 미세한 수치적 경향성은 학습자가 각 창작 방식을 어떤 순서로 경험하느냐에 따라 인식 변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초적인 단서로 이해할 수 있다.



[Figure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methods of Gugak creation on culturally responsive music experience perception

2)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하위 요인별 인식 차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의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인식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으며, 정체성과 성취(t = 0.296, p = .768), 형평성과 수월성(t = -0.080, p = .936), 발달적 적절성(t = -0.94, p = .351), 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t = 1.146, p = .256), 학생-교사 관계(t = 0.361, p = .719)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즉흥 창작과 정간보

창작 방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중비교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본페로니 보정을 적용한 유의수준(*p_adj*) 역시 모든 하위 요인에서 1.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효과 크기(Cohen's $d < 0.2$) 또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창작 방식이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음악 교육 경험에 대등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발현시켰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기술통계 결과에 따르면, 즉흥창작과 정간보 창작의 모든 하위 요인별 평균이 리커트 척도 5점 만점 중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창작 방식에 관계 없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이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각 방식별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즉흥 창작의 경우 학생 교사 관계(M = 4.45)-형평성과 수월성(M = 4.26)-정체성과 성취(M = 4.21)-발달적 적절성(M = 4.17)-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M = 4.08)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간보 창작의 경우 학생 교사 관계(M = 4.43)-형평성과 수월성(M = 4.19)-발달적 적절성(M = 4.23)-정체성과 성취(M = 4.19)-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M = 4.00)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록 기술 통계상 요인별로 미세한 평균 점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두 창작 방식이 모두 대등한 수준에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6> Paired samples t-test results for culturally responsive music experience perception by Gugak creation method

Factors	Method	*M*	*SD*	*t*	*df*	*p*	*p*_adj	Cohen's *d*	sig
Identity & achievement	improvisation	4.21	0.60	0.296	69	.768	1.000	0.035	ns
	notation	4.19	0.67						
Equity & excellence	improvisation	4.26	0.63	-0.08	69	.936	1.000	-0.01	ns
	notation	4.27	0.64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improvisation	4.17	0.66	-0.94	69	.351	1.000	-0.112	ns
	notation	4.23	0.69						
Musical agency & empowerment	improvisation	4.08	0.76	1.146	69	.256	1.000	0.137	ns
	notation	4.00	0.71						
Student-teacher relationship	improvisation	4.45	0.52	0.361	69	.719	1.000	0.043	ns
	notation	4.43	0.62						

Note: ns = not significant

3)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문항별 인식 분석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에서 국악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

악 경험 인식의 문항별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앞서 실시한 요인별 분석 결과, 두 창작 방식 간의 음악 경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절에서는 문항별 평균 점수의 단순 분포와 미세한 경향성을 탐색하여, 질적 자료 분석과의 통합 해석을 위한 기초 단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12번 문항의 정간보 창작 경험과 관련된 주체적 역량(M = 3.89)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두 가지 창작 방식 모두 리커트 척도 5점 만점에 평균 4.0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특정 창작 방식의 우열과 상관없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 자체가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두 가지 창작 방식의 평균은 전반적으로 대등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각 문항에 따라 미세한 수치적 경향성의 차이를 보였다. 첫째, 정체성과 성취 요인에 따른 문항 중 개인의 정체성 표현(1번 문항)과 음악적 배경의 존중(문항 2)과 관련된 문항은 즉흥 창작 방식에서 미세하게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국악을 통한 예술적 자기표현(문항 3) 관련 문항에서는 정간보 창작 방식의 수치가 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형평성과 수월성 요인에 따른 문항 중 동등한 접근(문항 4) 관련 문항은 즉흥 창작 방식의 수치가 좀 더 높았으나, 표현의 수월성(문항 5)과 성공 기회의 균등성(문항 6) 관련 문항은 정간보 창작 방식이 수치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발달적 적절성 요인에 따른 문항에서는 발달적 적합성(문항 7) 관련 문항은 즉흥 창작 방식의 수치가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도전적 과제 인식(문항 8)와 참여와 몰입(문항 9) 관련 문항은 정간보 창작 방식의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 요인에 따른 문항은 즉흥 창작 방식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음악적 주체성(문항 11)과 주체적 역량(문항 12) 관련 문항은 즉흥 창작 방식의 수치가 좀 더 높았으며, 음악적 자기 효능감(문항 10) 관련 문항은 즉흥 창작과 정간보 창작 방식의 평균이 같았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사 관계 요인에 따른 문항 역시 즉흥 창작 방식의 수치가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세심한 응답(문항 13)과 민주적 상호작용(문항 15) 관련 문항은 즉흥 창작 방식의 수치가 미세하게 높았으며, 자율성 지원(문항 14)에 대한 문항은 두 가지 창작 방식의 평균이 동일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비록 이와 같은 문항별 수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창작 방식이 학습자에게 작용하는 경험의 질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이어지는 질적 분석을 통해 양적 결과 이면에 담긴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경험의 질과 양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Table 7> Item-by-item descriptive statistics for culturally responsive music experience perception by Gugak creation method

No	Items	Methods	*M*	*SD*
1	The jangdan(rhythmic patterns) I created in this class reflect my own individuality well.	improvisation	4.11	0.77
		notation	4.08	0.80
2	While creating the Janggu rhythmic patterns, I felt that my musical background (such as the music I usually enjoy) was respected.	improvisation	4.21	0.70
		notation	4.11	0.91
3	Through this class, I realized that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is not a music confined to fixed frameworks, but an attractive music that can be freely expressed through my own ideas.	improvisation	4.30	0.67
		notation	4.39	0.62
4	In this class, I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e creative process in my own way, regardless of my prior musical experience or musical ability.	improvisation	4.34	0.66
		notation	4.29	0.68
5	This creative method was an effective way to express my musical ideas.	improvisation	4.16	0.79
		notation	4.20	0.73
6	This was a class where anyone could confidently participate in creation.	improvisation	4.29	0.66
		notation	4.31	0.71
7	This creative method (improvisation/notation) was a natural and appropriate way to express ideas at my musical level.	improvisation	4.26	0.70
		notation	4.24	0.73
8	This class was a task that I felt motivated to challenge myself with.	improvisation	4.03	0.83
		notation	4.16	0.79
9	This instructional method was not boring; it stimulated my musical curiosity and kept me deeply engaged.	improvisation	4.21	0.70
		notation	4.29	0.76
10	Through this class, I gained the confidence that I am someone who can create new music.	improvisation	4.04	0.84
		notation	4.04	0.82
11	When performing the rhythmic patterns I created, I felt a sense of pride and agency as a musician.	improvisation	4.17	0.70
		notation	4.06	0.83
12	Even after the class ended, I felt a desire to create more of my own new rhythmic patterns.	improvisation	4.03	0.87
		notation	3.89	0.94
13	The teacher listened carefully to the rhythmic patterns I created and responded positively to my style of expression.	improvisation	4.50	0.53
		notation	4.47	0.63
14	The teacher respected my ideas, trusted me, and provided sufficient time for me to complete the rhythmic patterns on my own.	improvisation	4.44	0.56
		notation	4.44	0.65
15	When I encountered difficulties during the creative process, the teacher asked for my thoughts first rather than simply giving me the correct answer.	improvisation	4.41	0.60
		notation	4.37	0.69

2. 질적 연구 결과: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질적 양상

1)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질적 양상

본 연구에서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두 가지 방식의 국악 창작 수업을 모두 경험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응답을 통해 선호하는 창작 방식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70명의 학생 중 60%(42명)가 즉흥 창작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37.1%(26명)가 정간보 창작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기타 응답 2.9%, 2명).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양적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양적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경험의 질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창작 방식에 따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의 질적 차이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화감응교수법 수업 설계의 다섯 가지 기준을 연역적 분석의 틀로 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아래 <Table 8>에서 볼 수 있다.

<Table 8> Categori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n culturally responsive musical experiences by Gugak creation methods

Methods / Factors of CRP	Improvisation	Jeongganbo notation
Identity & achievement	Spontaneous identity expression	Structured identity expression
Equity & excellence	Freedom of expression	Stability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Cognitive liberation	Symbolic scaffolding
Musical agency & empowerment	Agency as a free improviser	Agency as a composer
Student-teacher relationship	Emotional support	Technical support

(1) 정체성과 성취: 분출된 정체성 vs 구조화된 정체성

먼저 정체성과 성취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장단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상적 문화 배경과 음악적 취향을 개성 있게 표현하며 성취감을 느꼈다. 이와 같은 질적 경험의 양상은 창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흥 창작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리듬이나 평소에 좋아하는 리듬 등을 즉흥적으로 자유롭고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 “즉흥적으로 연주하며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해서 즐거웠다”, “나만의 개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악적 느낌이 장단에 담겼다.”, “장구를 즉흥적으로 칠 때 내가 좋아하는 K-pop을 떠올리면서 했다.”,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느낌대로 장단을 치는 것 자체가 좋았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대로 장단을 바로 칠 수 있어서 나만의 스타일이 표현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부점 리듬을 살려 장단을 쳤다.” 등 다양한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장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분출하며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반면, 정간보 창작을 통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문화적 경험을 정간보에 기보하며 구조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성취감을 얻었다. 이러한 양상은 “에스파의 <수퍼노바> 리듬을 정간보에 그려 장단을 만들었다.”, “스트레이 키즈의 <Leave>에 나오는 리듬으로 장단을 만들어 정간보에 적었다.”, “데이식스 <Congratulations>의 특징인 드럼 부분을 표현했다.”, “혁오밴드 <위잉위잉>의 기타 부분의 리듬을 따와 정간보에 그려서 나의 음악적 특징이 드러났다고 느꼈다.”와 같은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두 가지 국악 창작 방식은 모두 학생 개개인의 문화적 배경이 국악이라는 그릇 안에서 주체적인 정체성으로 살아나고 성취로 이어지는 능동적인 표현의 장이 되었다. 즉흥 창작에서는 분출된 정체성의 발현, 그리고 정간보 창작에서는 구조화된 정체성의 발현이라는 차이를 보였지만, 결국 학생들의 일상적인 문화와 국악을 연결하여 성취를 이끄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 형평성과 수월성: 자유로운 표현 vs 안정감

형평성과 수월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 창작 방식을 통해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즉흥 창작에서는 정간보의 형식에 맞춰 기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와 만족감을 느꼈다. 학생들은 “즉흥적으로 내 생각을 바로 연주할 수 있어서 편했다.”, “정해진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바로 장단을 만드는 거라 편하고 자유로웠다.”라고 하며,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편안함 속에서 성취를 경험했다.

반면, 즉흥 창작 활동에서 바로바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정간보를 활용하여 창작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이들은 “즉흥적으로 하면 잘 못할까봐 불안했는데 정간보에 그리고 연주해서 안심이 됐다.”,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져서 더 완벽한 장단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악보로 옮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안정감과 성취감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두 가지 국악 창작 방식은 각각 자유로운 표현과 안정감을 통해 국악 창작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수월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였다.

(3) 발달적 적절성: 인지적 해방 vs 인지적 비계

발달적 적절성의 측면에서, 두 가지 창작 방식은 서로 다른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중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수업 경험을 제공하였다. 즉흥 창작을 할 때, 학생들은

“정해진 틀에 맞춰 장단을 그리는 것보다 더 자유롭고 편했다.”,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대로 바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칠 수 있어서 부담이 덜했다.” 라고 말하며, 음악적 아이디어를 악보로 바꾸지 않아도 바로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움과 인지적 해방감을 느꼈다.

반면, 정간보 창작의 경우에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정간보로 시각화하고 재구성하며 구조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나만의 악보를 만드는 느낌이어서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장단을 악보에 그릴 수 있어서 좀 더 성공한 느낌이 들었다.”, “장단을 정간보에 그리는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만족감이 높았다.”라는 학생들의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정간보는 학생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하도록 돕는 인지적 비계로 작용했다. 이처럼 두 가지 창작 방식은 각각 인지적 해방과 인지적 비계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발달 과정과 개별적 특성에 맞춰 더욱 풍부한 문화감응적 국악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4) 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 자유로운 음악가 vs 작곡가

음악적 주체성과 권한 부여의 관점에서, 두 가지 창작 방식은 모두 학생들이 자신을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음악가로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실제 장단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도 충분히 멋진 장단을 만들 수 있다.”, “자신감이 올라갔고, 흥이 넘쳤다.”,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내가 만든 장단을 연주하니까 진짜로 음악가가 된 것 같다.”라는 응답을 통해, 음악가로서의 권한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국악을 더 알고 싶어졌고 다른 악기도 배워보고 싶다.”, “다른 장단을 더 만들어서 잘 연주해보고 싶다.”와 같이 국악을 배우는 데에 있어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의지로 이어졌다.

창작 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음악가로서의 경험은 다른 차원으로 발현되었다. 즉흥 창작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연주하는 음악가가 된 것 같았다”,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하는 음악가처럼 느껴졌다.”와 같은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적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고 ‘자유로운 음악가’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간보 창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간보에 담아내면서 작곡가로서의 성취를 경험했다. 이는 “내가 직접 만든 악보를 보니 작곡가가 된 것 같았다.”, “정간보에 나의 장단을 만들어보니 내가 작곡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뿌듯했다.”와 같은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창작 방식은 모두 국악을 통해 ‘자유로운 음악가’와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학생들 스스로 주체성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5) 학생-교사의 관계: 기술적 지원 vs 심리적 지원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도 학생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각 창작 방식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따뜻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좋았다.”, “틀릴까봐 불안했는데 잘 못해도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좋았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다.”와 같은 응답은, 교사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지지가 창작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선생님이 정답이 없다고 하며 내가 만든 장단을 존중해주셨다.”, “틀려도 괜찮다고 격려해주셨다.”와 같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창작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교사의 태도는 창작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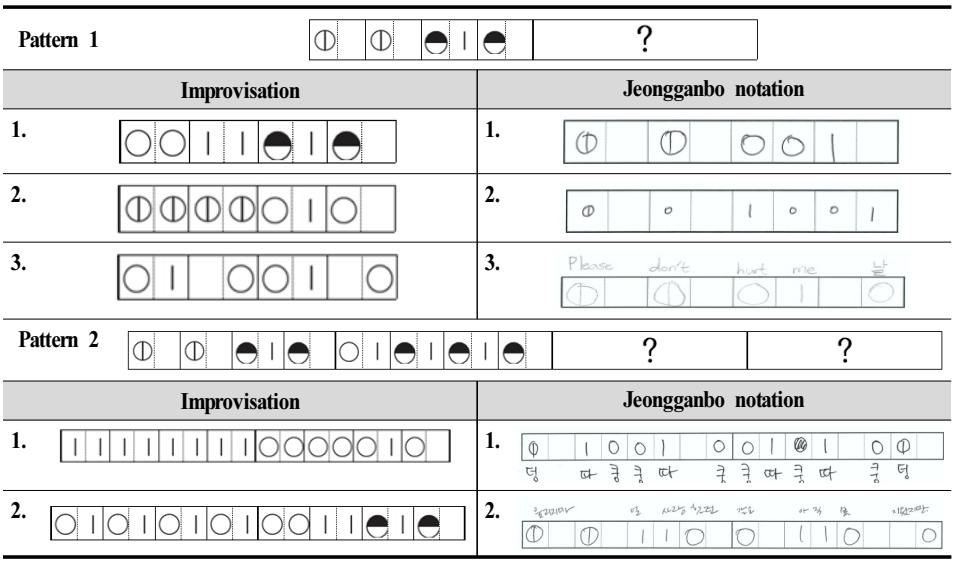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상호작용의 양상은 창작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즉흥 창작 과정에서는 교사의 칭찬이나 호응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창작에 쉽게 도전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정간보 창작 과정에서는 창작 결과물에 대해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토대로 장단을 구조화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고유한 가치로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를 통해 각 창작 방식에 맞는 기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창작 과정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음악적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다.

2) 국악 창작 결과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개방형 설문 응답과 더불어, 즉흥 창작 활동 시 촬영한 수업 영상과 학생들의 정간보 창작 결과물을 수집하여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의 성취도와 결과물의 양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국악 창작 결과물의 예시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에는 별달거리 장단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국악 창작의 핵심인 반복과 변형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었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4박으로 구성된 별달거리 장단의 기본 구조에 맞추어 첫 박에 대부분 ‘덩’이나 ‘쿵’을 넣어 강세를 표현하였으며, 별달거리 장단의 일부를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유형 1의 즉흥 창작 1, 2번과 같이 장단의 뒷부분은 원형을 유지하되 앞부분에 변화를 주거나, 혹은 유형 1의 정간보 창작 1, 2번과 같이 장단 앞부분은 원형을 유지하되 뒷부분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유형 2의 즉흥 창작

1, 2번과 같이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도 장단 뒷부분에 ‘궁따쿵’ 부분은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등 반복과 변형의 원리를 창작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별달거리 장단의 기본 구조와 국악 창작의 원리를 체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ure 2] Examples of creative outcomes

둘째,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은 창작 방식에 따라 음악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흥 창작의 경우, 학생들은 별달거리 장단을 배우며 체득한 장단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창작 과제 유형 2에 대한 결과물을 살펴보면, 장단의 뒷부분은 ‘궁따궁’으로 맺도록 하여 별달거리 기본 장단의 틀에 맞추되, 장단의 앞부분은 ‘따따따따따따’,‘쿵따쿵따쿵따쿵’, ‘덩덩덩덩’과 같이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장구의 음향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험적인 장단을 구성하여 순간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양상이 다수 관찰되었다. 반면 정간보 창작의 경우, 학생들은 장단의 구조를 고려하여 음악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창작 과제 유형 1의 1, 2번을 살펴보면, 장단 앞의 ‘덩덩’의 구조는 반복하여 유지하되 뒷부분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창작하여, 시각적으로도 별달거리 장단의 기본 구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정간보 창작에서는 별달거리 장단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작 결과물을 통해 별달거리 장단의 틀 안에 학생들의 문화적 자본이 투영되어 창의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즉흥 창작 유형 1의 3번에는 엇박이 장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방형 설문에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엇박을 장단에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창작물로, 학생의 음악적 취향이 투영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정간보 창작에서 자신이 평소 즐겨 듣는 노래의 리듬을 떠올리며 장단의 구조 안에 자신의 문화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고자 고민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창작 유형 2의 1번은 개방형 설문에서 “혁오밴드 <위잉위잉>의 기타 부분의 리듬을 따와 정간보에 그려서 나의 음악적 특징이 드러났다고 느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창작물로, 별달거리 장단의 구조 안에서 노래의 리듬과 엇박의 특징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또한 창작 유형 1의 3번과 창작 유형 2의 1번 결과물을 살펴보면, 노래의 가사가 정간보 위에 적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노래 가사에 해당하는 리듬을 음악적 아이디어로 삼아 자신의 일상 음악 경험을 장단 창작과 연결하고자 고심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에서 즉흥 창작과 정간보 기보 창작 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을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해 수렴적 혼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연구의 초점이 단순히 문화감응교수법 적용에 대한 효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 설계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두 가지 창작 방식이 지닌 차이를 조명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양적 연구 결과는 집단 및 창작 방식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질적 연구 결과에서는 창작 방식에 따라 경험의 질과 양상에 차이가 드러났다. 즉, 양적 연구 결과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 설계의 효과가 두 가지 창작 방식 모두에서 대등한 수준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며, 질적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대등한 수준의 문화감응적 경험의 토대 위에 각 창작 방식의 특성에 따른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수렴적 혼합 연구의 관점에서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학교 교육 맥락에서 주를 차지하고 있는 정간보 창작 교육의 가치를 조명함과 동시에, 국악 즉흥 창작이 지니는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악 교육 맥락에서 문화감응교수법의 적용과 국악 창작 교육의 실천적 방향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양적・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분석 결과에서 창작 방식이나 집단 배치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문항에서 평균 3.89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는 점은, 창작 방식과 관계없이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이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악 창작 수업은 전통 문화 유산인 국악과 학생들이 삶에서 향유하는 일상적인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질적 분석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생들은 국악의 장단이라는 그릇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는 K-pop이나 인디 밴드 음악의 리듬 패턴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분출하거나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등 주체적인 음악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자본을 학습의 자원으로 삼아 학업적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문화감응교수법의 핵심 전제를 음악 교과 맥락에서 실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Brown-Jeffy & Cooper, 2011; Gay, 2018; Ladson-Billings, 1995; Palm et al., 2021). 이는 문화감응교수법을 바탕으로 한 국악 창작 교육이 국악을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음악이 아닌, 학생의 삶 속에서 생동감 있게 호흡하는 음악이자 표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양적 연구 결과에서 두 가지 창작 방식에 따른 하위 요인별, 문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즉흥 창작이 정간보 기보 창작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학교 음악 교육의 기보 관행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에게 즉흥 창작은 낯설고 심리적 진입 장벽 역시 높게 느껴질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 창작이 정간보 기보 창작과 대등한 수준의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사실은 즉흥 창작의 교육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즉흥 창작의 가치는 질적 분석 결과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비록 양적 결과에서는 두 가지 창작 방식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방형 응답을 통한 선호도 분석 결과에서는 즉흥 창작 방식에 대한 선호(60%)가 정간보 창작 방식에 대한 선호(37.1%)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양적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국악 즉흥 창작의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질적 내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악 즉흥 창작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는 학습자가 기존의 규칙이나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지적 해방감을 경험하고, 음악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국악 즉흥 창작에 대한 시도는 파머 등(Palmer et al., 2021)이 문화감응교수법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 국악 고유의 전승 방식과 학습 관행을 존중하는 '진정성'의

실천이자, 기보 중심과 구전 전승 방식의 균형을 추구하는 '총체적이고 비교적인 수업'을 구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적 시도는 학생들이 국악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일상적 문화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국악 본연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앞서 논의한 즉흥 창작의 교육적 가능성은 기존 학교 음악 교육에 고착화된 기보 중심 관행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국악 창작과 관련된 연구나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창작 활동은 서구식 오선보의 관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기보법인 정간보 기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Kim, 2023; Kwon, 2017). 정간보는 학습자가 국악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인지적 지원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국악 창작을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Kwon, 2014, 2017). 하지만 이 역시 음악적 아이디어를 악보라는 시각적 틀 안에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기보 중심적 사고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Lee, 1980,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질적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이 즉흥 연주의 탈악보 상황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반면, 정간보를 활용한 창작 방식에서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정간보 창작의 교육적 가치와 유용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학습자들이 기존의 기보 관행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간보 창작이 지닌 교육적 효과와 가치를 인정하되, 학습자들이 서구식 기보 관행에 따른 타성적 안정감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학생들이 국악의 즉흥적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악보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산하고 즉흥적인 표현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수업 배치 집단과 창작 방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차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즉흥 창작과 정간보 창작 방식이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 특성과 배치 순서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즉흥 창작을 먼저 경험한 A집단은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예술적 해방감을 경험한 후, 정간보라는 인지적 비계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며 만족감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간보 창작을 먼저 접한 B집단은 정간보 기보 체계를 통해 음악적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정립한 뒤, 즉흥 창작 단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층 넓혀가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두 집단 모두 선행 활동보다 후행 활동에서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은, 이 두 가지 창작 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두 가지 창작 방식이 만들어내는 상호보완적 선순환은 브라운-제피와 쿠퍼(Brown-Jeffy & Cooper, 2011)의 문화감응교수법의 핵심 요소를 토대로 설정한 다

섯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즉흥 창작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인지적 해방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와 개성을 마음껏 분출하였고, 이를 통해 음악가로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발휘하였다. 반대로 정간보 창작을 통해서는 기보 체계라는 인지적 비계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구조화하며 작곡가로서의 역할을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파머 등(Palmer et al., 2021)이 언급한 '총체적이고 비교적인 수업'의 차원에서 기보 중심 교육과 구전 전승 기반의 즉흥 연주 및 창작과 같은 학습 방식의 균형을 강조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 가지 교수 방식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창작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때 보다 풍부하고 깊이있는 문화감응적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 교육 맥락에서의 문화감응교수법 적용과 국악 창작 교육의 실천적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감응교수법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국악의 본질을 진정성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악 창작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악 창작 수업에 즉흥 창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전통 기보법인 정간보를 인지적 비계로 삼아 '선 즉흥, 후 정간보 창작'의 단계적 교수-학습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즉흥 창작과 정간보 창작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문화감응적 음악 경험을 촉진한다. 특히, 빈도 분석 결과, 학생들이 정간보 창작보다 즉흥 창작을 선호하였다는 점에서 즉흥 창작 방식은 국악 창작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인지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흥미를 이끄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악 창작 학습에서 정간보를 인지적 비계로 활용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즉흥 창작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국악의 즉흥적 본질을 경험한 후, 이를 정간보에 구조화할 수 있도록 '선 즉흥, 후 정간보 창작'의 단계적 국악 창작 교육의 적용을 제안한다.

둘째, 학습자가 거시적 틀 안에서 미시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악 즉흥 창작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참여하여 음악적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흥 창작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선율의 구조 같은 거시적 틀과 모티브나 장식음 같은 미시적인 요소들이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진행되는 것이다(Lee, 1981). 본 연구에서도 별달거리 장단을 큰 틀로 제시한 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장단을 자유롭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었다. 이는 한 장단 혹은 두 장단 안에 표현된 각 학생들의

미시적인 자유와 개성이 모여 즉흥적으로 공동의 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악의 즉흥적 본질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소수의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공평한 성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문화감응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음악 교사는 장단이나 조와 같은 거시적인 구조를 제공하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문화감응적 즉흥 창작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감응교수법을 국악 창작 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악 교사의 문화감응적 교수역량과 국악 창작 교수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교사의 관계', 즉 교사 자체가 수업의 성공을 이끄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문화감응교수법이 학생의 문화적 자산을 가치있는 것으로 존중하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Brown-Jeffy & Cooper, 2011; Palmer et al., 2021). 이는 음악 교사의 문화감응교수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국악 창작 교육이 정간보 창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서구 기보 중심의 교육 관행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국악 즉흥 창작에 대한 교수 역량 강화의 필요를 드러낸다. 따라서 예비 교사 양성 과정 및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음악 교사의 문화감응적 역량과 더불어, 국악 즉흥 창작 교수역량 및 서구 중심 음악 교육 관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중학교 국악 창작 수업에 적용하고,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그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국악의 본질적 특성인 즉흥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전통 문화유산인 장단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국악 즉흥 창작 교육의 확장 가능성과 실천적 가치를 탐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설계 및 분석 범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교육의 측면에서, 래드슨-빌링스(Ladson-Billings, 1995)가 제시한 문화감응교수법의 핵심적 가치인 문화적 역량, 학업적 성취, 비판적 의식을 거시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기는 하나, 도달 범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전통 문화유산인 국악을 자신의 일상적 삶과 연결하여 주체적인 표현 매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역량 함양을 확인하고, 국악 창작 산출물을 통해 학생들의 국악 장단 및 장단 창작의 반복과 변형 원리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학업적 성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비판적 의식 형성 측면에서, 학생들이 기존의 기보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국악의 즉흥성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서구 중심적 음악 관행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단계까지는 심도 있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역량 함양, 학업적 성취를 토대로 비판적 의식까지 형성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악 즉흥 창작 교육의 효과를 다각도로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감응교수법을 적용한 국악 창작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겪는 음악 경험을 조명하고 즉흥 창작 교육의 가능성과 가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국악 즉흥 창작 활동 자체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히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최종 산출물이 전통적인 국악 어법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여 재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악 즉흥 창작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다각도로 규명하고, 학생들의 산출물에 대한 국악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ae, G. (2017).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s of the composition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based on the Gayageum Sanjo of Seong, Geumyeon school: Focusing on the middle school 1-3 grad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Bond, V. L. (2017). 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42,* 153-180. https://www.jstor.org/stable/26367441

Brown-Jeffy, S., & Cooper, J. E. (2011).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of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 overview of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literature. *Teacher Education Quarterly, 38*(1), 65-84. https://www.jstor.org/stable/23479642

Cho, S. G., Song, M. K., Yoon, J. H., Hwang, J. Y., Yoon, H. M., & Jung, H. J. (2025). *Middle school music 1-2*. Mirae-n.

Choi, E. S., Kim, H. S., Ha, M. J., Kim, S. Y., Kang, H. S., & Lee, M. K. (2025). *Middle school music 1-2*. Chunjae Text.

Chung, J. W., & Kwag, H. (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in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4*(3), 93-118.

Chung, J. W., & Kwag, H. (2020). Ways to cultivate intercultural competency of prospective teachers through music-centered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3*, 147-167. https://doi.org/10.30832/JMES.2020.43.147

Creswell, J. W., & Plano Clark, V. L. (2011).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2nd ed.). SAGE Publications.

Elo, S., &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569.x

Gay, G. (2018).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eachers College Press.

Jang, M. (2025).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music creation education using Gyeonggi folk songs.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57,* 243-277.

Jung, J. Y., Kang, S., & Lee, D. (202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education courses for enhancing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ical competence - Focusing on music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56*, 237-258.

Jung, Y. (2026). Developing design principles for Korean music composition and performance education through YouTube shortcuts.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57*, 279-303.

Kim, D. W., Whang, B. S., Kim, J. K., Kim, H. K., Jung, S. Y., Park, B. H., Park, S. J., Kim, K. A., Lee, Y. N., Seo, J. M., Eom, S. Y., Hong, J. S., & Lee, N. L. (2025). *Middle school music 1-2*. Achimnara.

Kim, K. T. (2024).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music creation class using block coding Scratch.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18*(1), 27-50.

Kim, M. H. (2023). Tasks of Korean music creative edu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17*(2), 237-272.

Kim, M. H. (2024).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Korean music creation classes and search for improvement directions in Korean music creative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18*(1), 51-86.

Kim, S. (2025). Exploring and adapting knowledge in music education to enhance competencies: Focusing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al concept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10*(3), 1-24. https://doi.org/10.36223/jnafme.2025.10.3.001

Kim, S. E. (2015).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creation using Jungganbo,*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S. Y. (2024).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f middle school music teachers regarding the cre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class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im, Y. H., Hyun, K. S., Lim, I. K., Ko, J. H., & Jo, A. Y. (2025). *Middle school music 1-2*. Pakyoungsa.

Kwon, D. W. (2014). A study on instructional method of creating music using traditional idiom for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7-26.

Kwon, D. W. (2017). A study on the models of instruction for creating Korean music in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44*, 7-28.

Kwon, H. (202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to elementary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ition classes applying LT cooperative lear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5*(10), 707-719.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10.707

Ladson-Billings, G. (1995). Toward a theory of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3), 465-491. http://www.jstor.org/stable/1163320?origin=JSTOR-pdf

Lee, B. (1980). Improvisation in Korean musics. *Music Educators Journal, 66*(5), 137-145.

Lee, B. (1981). Concept, practice and repertoires of traditional improvisatory music of Korea. *Journal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4*, 21-35.

Lee, B. (2000). Western staff notation and its impact on Korean musical practice. *Journal of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22*, 89-102.

Lee, S. (2013). *Study on a teaching method for 1st and 2nd class of middle school in order to develop fluency and elaboration among creativity: By utilizing rhythm, rhythm material and scale of Korean music.* Master's thesis,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McKoy, C. L., & Lind, V. R. (2022).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in music education: From understanding to application.* Routledge.

OECD. (2019). Concept note: Knowledge for 2030. In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A series of concept notes* (pp. 71-82). OECD Publishing.

Palmer, E. S., Vodicka, J., Huynh, T., D'Alexander, C., & Crawford, L. (2022). Grounded framework for culturally relevant and responsive music teaching.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1), 24-33. https://doi.org/10.1177/87551233211055815

Park, J. (2017).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making story music using Korean children songs: Focused on the improvisation activitie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2*(1), 61-80. https://doi.org/10.36223/jnafme.2017.2.1.004

Park, J. Y., Kim, Y. J., Lee, K. H., Lee, J. H., Jo, S. W., Lee, J. Y., Lee, J. Y., & Lee, J. E. (2025). *Middle school music 1-2*. YBM.

Song, H. J. (2015). Modern gugak, and its originality, change, and generation. *Studies on Korean Music Culture, 6*, 25-44.